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하시려는 분들에게

제31기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최하나님

## 합격수기

###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31회 합격자 최하나입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소 늦은 나이에 이 시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 시험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공부하고 계신 직장인 수험생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수기를 작성하겠습니다.

### II. 1차시험

#### 1. 전반적인 공부방법

1차시험은 기술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단시간내 고득점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공부방법은 ①강의수강 -> ②책 외독 -> ③기술문제 기본서에 표시 -> ④외독 및 문풀반복 이었습니다.

1차시험은 객관식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풀어나야 하므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면 빨리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차례 1차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지는 않았고 별도로 구매하여 두 번 정도 혼자 시간을 쪼개면서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1차 모의고사는 2차 모의고사처럼 반드시 해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외계학이 불안하신 수험생분들은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2. 관세법

### (1) 강의 및 공부방법

1차 관세법은 이00 관세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1차 관세법 공부방법에는 암기식의 활용과 기출문제 반복학습이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FTA특례법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소홀히 하지 않고 잡고 가는 것이 관세법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 (2) 법령집 활용

저는 2차보다 1차 관세법 공부에 있어 법령집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법령집 활용으로 관세법에 대한 체계를 잡기 수월했고, 외독을 반복하거나 숫자 날짜 기간 등을 별도로 정리하는데 편리했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법령집이 잘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기본서로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2. 무역영어

### (1) 강의 및 공부방법

무역영어 강의는 김용원 관세사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저는 ①강의수강 ②책 한번 외독 ③협약 국문외독 ④협약 영문외독 및 해석 ⑤기출문제 협약에 표시의 순서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출제되는 CISG, INCOTERMS, UCP를 먼저 충분히 학습하시고 나머지 협약은 기출문제에 출제된 조문 중심 및 협약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시길 추천합니다.

### (2) 문제풀이

무역영어의 경우 협약을 완벽히 이해하고 문제를 풀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문제를 풀고 협약상 조문이나 단어를 반복 확인할 것을 추천합니다.

무역영어는 많은 문제를 풀어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문제를 많이 풀고 틀리는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어느새 실력이 늘어있을 것입니다.

### 3. 내국소비세법

#### (1) 강의 및 공부방법

내국소비세법은 황00 관세사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내세법의 경우도 기본서를 외독한 후 법령집을 활용해서 개념을 잡았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에 너무 중점을 두어 개별소비세법과 주세법을 소홀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주의사항

내국소비세법은 회계학과 같이 2교시에 풀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되면 회계학 문제풀이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세법이 범위도 적고 개념을 잘 잡으면 쉽다고 여겨 등한시 할 수 있지만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면 과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므로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 4. 회계학

#### (1) 강의

회계학의 경우 기본강의는 천00 회계사님의 강의를 문제풀이는 유지원 회계사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보통 한 회계사님 강의를 수강하는데 저 같은 경우 천00 회계사님은 기본개념을 꼼꼼하게 잡아주셔서 기본강의를 들었고 유지원 회계사님은 문제풀이 강의에서 핵심을 추려 문제집과 강의를 구성해주셔서 선택했습니다.

회계학 개념이 잘 잡혀있는 경우라면 다른 회계사님의 강의를 들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하신 수험생분들은 동일한 회계사님 강의를 들을 것을 추천합니다.

#### (2) 학습범위

일부 수험생 중 리스회계같이 까다로운 부분을 아예 학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쉽게 출제되고 유형자산 등 수험생들이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부분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됩니다.

어느 파트도 버리지 않고 공부하셔야 난이도 파악이 돼서 취약 문제와 버릴 문제의 구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넓고 얇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서 쉬운 문제에서 점수를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원가회계의 경우도 처음에 개념잡기가 쉽지 않겠지만 개념이해만 되면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이므로 꼭 버리지 말고 학습하셨으면 합니다.

### (3) 말문제

말문제의 경우 이론, 기술문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타이핑을 하면서 학습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개념이해는 물론 반복되어 제시되는 문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문제 해결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 III. 2차시험

### 1. 전반적인 공부방법

2차시험은 1차시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학습량과 암기량을 요구합니다.

4월에 1차시험을 마치고 가능하시다면 2차강의를 수강하시면서 2차 모의고사 반도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합니다.

2차 모의고사를 보면 2차시험에 대한 무게감과 증압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이 2차를 준비하는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차 커리큘럼은 기본-> 심화-> 마스터-> 모의고사 순서였습니다.

각 과목마다 커리큘럼을 선택적으로 수강이 가능하나 모든 과목의 모의고사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참여해야 실전준비에 불안감을 줄여줄 것이라 여겨집니다.

### 2. 관세법

#### (1) 강의

2차관세법은 제갈현근관세사님 교재로 공부했으며 기본강의와 마스터강의 모의고사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2) 공부방법

①제도별 의의 및 취지 등 파악 ②법조문 암기 ③조별 연관성 이해를 중점으로 학습했습니다.

제갈현근 관세사님은 상기 사항과 더불어 목차노트를 강조하시는데 저는 마스터 강의 때 주셨던 프린트를 활용해서 목차노트를 대신해 보았습니다.

목차노트를 활용하던 프린트를 활용하던 논제별 목차공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관세법은 논제별로 목차를 잡아 답안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법령집을 활용하기보다 기본서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서 외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또한 기본서 이외에 '관세법 해설'이라는 책을 통해 의의나 취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환급특례법의 경우 이해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법령집을 통해 체계를 잡고 기본서 외독을 반복하여 개념을 차츰 잡았습니다.

(3) 모의고사 활용

관세법은 논제에 따라 답안에 반드시 서술하거나 분량을 고려해 누락해야 하는 내용이 다변하는 과목입니다.

유사한 듯 보이지만 논제별로 서술내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많으므로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 답안연습을 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매주 제갈현근 관세사님이 주시는 모범답안을 활용해 의의나 취지를 추가적으로 학습하여 답안에 서술하려 노력했습니다.

3. HS

(1) 강의

HS강의는 우00 관세사님의 기본강의 및 문제풀이 과정과 조현희관세사님의 심화강의 및 모의고사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교재는 조현희관세사님의 법령집 및 기본서를 활용했고 오수교 교수님의 교재를 참고했습니다.

(2) 공부방법

HS는 처음에 개념잡기가 너무 어려웠던 과목이었습니다.

강의 및 기본서를 통해서 기본개념을 이해한 후에 법령집으로 주규정과 호의 용어를 외워나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기본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에 들어가니 암기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빨리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개념을 잡을 때 ① 오수교 교수님의 책을 활용해서 기초를 잡고 ② 호의 용어를 천천히 읽어보아 각 호의 용어에서 제외하거나 한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답안 서술시 주규정에 추가해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③ 제외물품의 경우 반복되는 제외물품 먼저 외우는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④ 해설서는 선배 관세사님들의 서브를 활용해서 보았고 정확한 암기보다 외독을 반복해 답안에 서술이 가능하도록 공부했습니다.

### (3) 주규정 및 호의용어

주규정과 호의용어는 가급적 빈틈없이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암기과목에 취약한 편이라 암기식 활용하거나 주규정을 녹음해서 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규정을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HS는 암기와 외우기의 무한 반복이 아닌가 합니다. 암기가 너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반복하다보면 어느새 암기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호의용어는 별도 축약한 프린트를 만들어서 시험보기 전날까지 눈에 익히는 방법으로 반복했습니다.

## 4. 관세평가

### (1) 강의

관세평가는 김00 관세사님, 김병수 관세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으며 교재는 김병수 관세사님의 교재를 활용했습니다. 기초과정은 김00 관세사님 강의를 활용하고 김병수 관세사님의 기본-> 마스터-> 모의고사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기본서는 김병수 관세사님의 교재를 활용했습니다.

### (2) 공부방법

관세평가는 강의를 수강한 후 기본서를 시간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읽어 나갔습니다. 김병수 관세사님의 교재가 워낙 방대하고 어려워 공부할 때 힘이 들지만 천천히 읽고 이해하려 노력하다보면 차후 학습에 든든한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재와 더불어 협정집을 활용했으며 협정집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협정집 목차는 협약, 결정 권고의견 등의 제목과 키워드를 쓰고 1방법에 있어

어느 파트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각각의 논제 제시시 빼먹지 않고 해당 협정 내용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개정된 고시와 협정내용을 비교해 반복되는 규정을 서로 표시해 놓아 답안 서술시 각 규정을 언급하되 내용 자체를 반복서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 (3) 협정집 및 협정목차 활용

관세평가는 관세법 및 관련고시와 협정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답안서술시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예를들면 특수관계/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등 각각의 논제를 중심으로 ①관세법과 고시에 해당하는 법조, ②협약에 해당하는 조항, ③결정사항, 권고의견, 예해, 해설 등에서 해당하는 번호 및 간단한 키워드, ④관세법 및 고시와 협정간 중복되는 사항 표시를 하여 mapping을 하였습니다.

협정목차는 법 내용이나 협정내용을 정리해서 쓰는 서브노트가 아닌 각 조문 제목과 키워드만 서술하는 '목차' 형태였습니다.

### (4) 모의고사 활용

관세평가의 경우 제시되는 문제의 내용 자체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판단하여 서술해야 하므로 모의고사를 통해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김병수 관세사님께서 제시해주시는 모범답안으로 논제별 서술과정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포인트 되는 사항을 주려 암기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 5. 무역실무

### (1) 강의

무역실무는 정00 관세사님 강의와 박병호 관세사님 강의를 수강했으며 교재는 박병호 관세사님 교재를 메인으로 이해를 했고 시중에 나온 다른 관세사님들의 여러 교재를 활용해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 (2) 공부방법

무역실무는 강의수강 후 교재를 꼼꼼하게 읽어나갔습니다. 박병호 관세사님 교재는 내용이 많아 읽기 힘들지만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무역실무는 처음에 큰 범위를 잡아 공부하고 차츰 그 내용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본서 외독을 통해 체계를 잡고 답안 서술을 위한 서브를 활용한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무역실무 요약집도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3) 모의고사 활용

저는 여러 관세사님들의 무역실무 모의고사 답안을 구해 읽었습니다. 모의고사를 모두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각 강사님별로 답안을 참고해 이러한 문제도 있구나 하면서 다양한 논제를 경험하고 제게 맞는 서술방식을 참고하기 위해 활용했습니다.

### (4) 대외/외환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 같은 경우 권중오 관세사님의 교재를 활용해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최권수 관세사님 교재를 활용해 내용을 축약, 암기했습니다. 대외, 외환은 관세법과 유사하게 목차를 활용하고 제도별 의의나 취지를 함께 정리해두어 답안서술시 활용했습니다.

암기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령암기를 조금 덜하더라도 의의나 취지를 서술해 추가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IV. 기타사항

### 1. 글씨 및 펜

직장생활을 하다 수험생으로 전업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글씨였습니다. 직장인 수험생 분들은 1차공부를 하시면서부터 2차를 위해 쓰는 연습을 미리 하셨으면 합니다. 안쓰던 글씨를 쓰려다 보니 속도가 너무 느려 2차 답안지를 채우기 힘들었습니다.

글씨를 예쁘게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글씨 크기와 쓰는 속도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험장에서 답안지가 평소 연습하던 답안지 두께보다 2배는 두껍게 느껴졌습니다.

종이 재질도 뻑뻑하다는 생각이 들어 글씨를 쓸 때 힘이 좀 더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펜은 에너젤 0.7 이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 경우 두꺼운 겔펜을 사용한 것이 답안 서술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2. 건강관리

2차 모의고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한달이 지날 때 마다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특히 4월부터 6월까지 모의고사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한주 한주를 버텨내야 합니다.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부터 3월까지의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영양제도 맞고 눈에 도움이 되는 약도 먹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 V. 마지막으로

2차시험날까지 부족한 것 투성이라 생각하며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험생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시험문제를 받고 아는 문제라고 너무 들뜨지 말고 잘 모르는 문제라고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셔서 그간 공부했던 내용들을 후회 없이 적고 나오면 좋은 결과가 기다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3년 6개월 이라는 긴 수험생활을 보내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합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졌던 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 답안지를 써서 제출하는 것은 나 혼자 해야 하는 것이지만 긴 수험생활에 모든 과정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포함해 그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친구들과 강사님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그들이 고된 수험생활을 버티게 해준 은인이 아닌가 합니다.

제 수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부족한 합격수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1기 관세사 최하나 드림

